

유연근무·직급 단순화... 혁신의 끝은 '수평적 소통'

>> 1면 '삼성의 변화'서 계속

2017년 3월부터는 기존 7단계였던 직급을 4단계로 단순화하고, 직원 간 호칭을 'OOO님', 오프로 등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제도 개편안을 시행했다. 사원1(고졸)·사원2(전문대졸)·사원3(대졸),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 7단계 직급이 대신 개인의 직무역량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CL(커리어 레벨) 1~4 체제로 바뀌었다. 출퇴근 시 복장도 자유롭게 해 여름이 아니더라도 반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했다.

2012년부터는 매년 전 세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만족도, 신뢰도, 피로도 등을 조사해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별 법정 기준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외 복리후생비로는 매년 4조원이 투입되고 있다.

임직원의 창의성을 한곳에 모으고 소

SAMSUNG

10년전부터 자율출근제 시행
국내외 복리후생에만 연 4조
임직원 스타트업 진출 지원도

통을 강화하기 위한 집단지성 플랫폼 '모자이크'도 운영 중이다. 임직원들은 우수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이션'과 그 아이디어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컬래버레이션'을 주축으로 한다. 여기에 속하는 서비스로는 ▲개별적으로 제안된 아이디어가 다른 임직원의 참여를 거치며 점차 발전해가는 '아이디마켓' ▲주관 조직 소속이 아니더라도 임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개 심화 토론 '스파크' ▲특정 문제와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삼성전자가 2016년 '스타트업 삼성 컬처혁신'을 선언했다.

/삼성전자

있는 '웨스턴즈' ▲자신이 개발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해 다른 임직원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M스토어' 등이 있다. 이들 서비스는 모자이크 출범 후 4년여간 사내 커뮤니케이션 문화에 빠르게 안착했다. 2014년 6월 서비스 정식 론칭 당시 4만5000명 선이었던 1일 평균 접속자는 2018년 8월 기준 9만 2000여 명으로 늘었다.

2012년 도입한 사내 벤처 프로그램 'C랩 인사이트'를 통해서도 임직원의 스타트업 진출도 돕고 있다. C랩 과제에 참여하는 임직원들은 1년간 현업에서 벗어나 독립된 근무공간에서 스타트업처럼 근무할 수 있다. 특히 C랩은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므로, 임직원들이 높은 목표에 대해 더욱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게 했다. C랩에서 스타

트업으로 분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5년 내 희망시 재입사가 가능해 임직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창업까지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AI, 자율주행,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매년 1000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있으며, 현재 31개 과제가 수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 259개 과제를 진행했고, 1060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바 있다. 259개 과제 중 93개는 사내에서 활용됐고, 40개는 회사에서 독립해 나가 스타트업으로 창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시행 전에는 자율출퇴근제가 있어도 늦게 출근하면 눈치가 보였는데 유연근무제가 정착하면서 자유롭게 출근해 정해진 시간동안 열심히 일하는 문화가 조성됐고, 임직원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LG화학, 폴란드 전기차 배터리공장 증설

인근 터키 가전공장 부지 매입
유럽 내 배터리 생산능력 향상

LG화학이 유럽 지역 내 배터리 생산량 증진을 위해 가전공장을 매입한다.

LG화학은 3일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인근 가전 공장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LG화학이 매입하는 공장은 터키 가전업체인 베스텔의 가전제품 조립 공장이다. 터키 언론 등에 따르면 이 공장 부

지 면적은 22만3000㎡이며 인수 가격은 3140만달러(약 374억원)로 전해졌다.

LG화학 관계자는 "베스텔의 공장은 브로츠와프 공장 근처에 있다"며 "기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인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3일 컨퍼런스 콜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주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20GWh를 추가해 120GWh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올

해 1월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중국 CATL을 제치고 2위(22.9%)에 올라섰다.

한편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가 전망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럽 투자를 단행해왔다. 2017년 7월 폴란드 공장을 준공했고,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 이어 유럽에 제2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다. 유럽 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점차 강화돼, 전기차와 함께 배터리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SK이노 노사, 올 임금교섭 30분 만에 '뚝딱'

논쟁없이 4년째 완전타결
코로나19로 '화상 조인식'

SK이노베이션 노사가 올해 임금교섭을 완전 타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임금교섭을 위해 노사 대표가 처음 만난 지난달 17일 30분만에 잠정합의안이 만들어졌고, 지난달 26일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에서 참여 조합원 84.2%가 찬성해 완전 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임금인상률은 노사가 전년도 소비자물가에 연동하기로 정한 원칙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인 0.4%로 확정됐다. 2010년 이후 최저 소비자물가지수인 0.4%라는 임금인상률이 적용 됐지만, 노사간 정해진 원칙에 따라 소모적 논쟁 없이 합의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3일 서울 서린

동 SK빌딩과 SK울산CLX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2020년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조인식은 코로나19를 감안해 전례 없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도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이성훈 노동조합위원장 등으로 최소화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우리 노사는 임금협상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4년 연속 합리적 결과를 만들어냈고, 높은 찬성률로 우리 구성원의 강한 결속력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며 "전세계적 경기침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져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이런 혁신적인 노사 문화야말로 SK이노베이션의 진정한 경쟁력이고 2020년을 새로운 행복과 미래를 위한 원년으로 만들어 갈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K㈜ C&C

데이터 시각화로 역량 제고

SK㈜ C&C는 데이터 시각화 전문 업체인 태블로와 '산업별 시스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장 공동 발굴을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었다고 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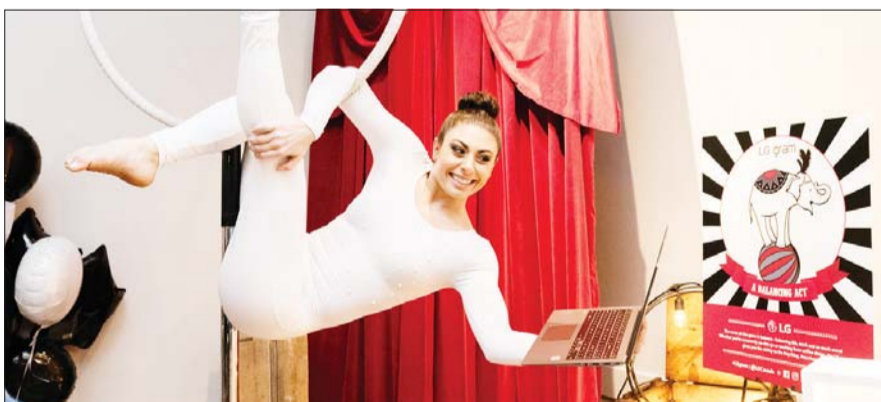
이번 업무 제휴는 SK㈜ C&C의 산업별 시스템 구축 및 운용 역량과 아규인사이트 플러스 등 빅데이터 플랫폼에 태블로의 데이터 시각화 전문 기술을 결합해 산업 현장의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세일즈포스가 작년 18조6000억원에 인수한 태블로는 글로벌 1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전문 기업으로 데이터 시각화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양사는 이번 제휴로 SK그룹은 물론 국내외 산업별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시장 공동 발굴에 나선다. SK㈜ C&C의 기업 고객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및 설계, 구축에 태블로의 데이터 시각화 기능을 기본 탑재함으로써 고객의 빅데이터 해석 역량을 한 단계 높인다는 전략이다.

양사는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사업 발굴 확대를 위해 빅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그룹 양성에도 힘을 합친다.

/구서윤 기자



LG전자가 최근 캐나다 토론토 소재 '스페이스' 행사장에서 현지 미디어와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LG그램 출시 행사를 열고, LG그램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집중 소개했다. 행사장에서 곡예사들이 17형 대화면에 휴대성까지 겸비한 'LG그램 17'의 '가볍다'는 강점을 이색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다.

/LG전자

노트북 들고 곡예... LG그램 가서 매력 뽐내

캐나다서 첫 선, 북미공략 확대

LG전자가 초경량 노트북 'LG그램'을 캐나다에 처음으로 출시했다.

LG전자는 2015년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도 LG그램을 론칭해 북미 프리미엄 노트북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

LG전자는 최근 캐나다 토론토 소재 '스페이스' 행사장에서 현지 미디어와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LG그램 출시 행사를 열었다. 휴대성, 내구성, 디자인 등 LG그램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집중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LG그램 축제'를 주제로 저글링, 공중 곡예, 무게 측정 게임 등 LG그램을 활용한 이색 이벤트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곡예사들은 17형 대화면에 휴대성까지 겸비한 'LG그램 17'의 '가볍다'는 강점을 표현하기 위해 LG그램 17을 공중으로 던졌다 잡는 저글링을 선보였고, 한 손으로 LG그램 17을 든 상태에서 공중 곡예를 펼치는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KT 'AI 관제 솔루션' 글로벌서 인정

'닥터 로렌' GSMA 사례 연구 선정

KT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통신 장애 분석 솔루션 '닥터 로렌'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의 사례 연구로 선정돼 그간 연구 결과가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고 3일 밝혔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의 사례 연구는 글로벌 IT 분야의 모범 실무 중 혁신적이고 성과가 우수한 기술만을 선별해 공개하는 국제적인 공유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 연구 결과가 발간된다는 것은 사업성과 기술적 가치를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닥터 로렌은 네트워크로부터 빅데이터를 수집,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장애의 근본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복구를 위한 조치사항까지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불가피한 통신 장애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2018년 11월 KT 상용 서비스의 네트워크에 적용됐다.

이번에 발간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케이스터디에는 닥터 로렌의 주요 특징을 비롯해 업무 생산성 향상 결과와 예상되는 비용 절감 효과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면 전문가들이 직접 경보 리스트를 분석하고 장애를 해결하는데 수십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스테디에는 닥터 로렌을 이용, 네트워크 장비들로부터 수집한 경보간의 상관관계를 AI 알고리즘으로 고속 분석하고 근본 원인을 1분 내 명확하게 찾아낸 사례들이 소개됐다. 닥터 로렌은 숙련된 네트워크 전문가가 부족한 국가나 사람이 근무하기 어려운 극한의 통신 환경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전망된다. /김나인 기자 ikni@